

牧使公派譜序

牧使公諱王同結城君諱夏之七世孫也猗歟維公德合元疆澤配悠久有子三人灝洪湛皆白牌進士後裔之孝弟忠信文藝學問耀人耳目都是公之積德累仁之餘蔭也所謂嘗其一臠可知全鼎之味者卽此也然雲仍散在八域纔免公藝之同居而兄弟爲吳越至親爲路人言凶榮辱視爲秦瘠是何同宗花樹之義哉識者之痛歎粵維久矣近聞公之十四世孫亨基慨然慚愧奮然揚臂曰金玉雖寶不貫則

與瓦石無異兄弟雖親遠之則不如隣人不憚獨賢
之勞出沒京鄉團聚以繞合龜輯以成帙如貫散珠
如團碎金吳越而爲兄弟路人而爲至親譬如百川
朝宗于滄海衆星垂拱于北極矣自此以後篤習詩
禮敦行和睦則孝弟之心油然而生花樹之誼勃然
而興晉張之運漸開而變屈爲伸改衰爲盛其在斯
矣於是乎序

隆熙後再巳酉八月 日十二世孫在圭序

牧使公派譜序

우리結城張氏는始祖太師忠獻公諱貞弼의後裔로시中祖高麗平章事結城君諱夏의後孫들이다結城君께서는아들三兄弟를두셨으니長은諱仲魯領相이시고次는諱李魯戶判도次는諱蕙魯工議이시니이三兄弟분의子孫들이三大部分派가되어或은南으로或은北으로國內八域에藩行하여巨族을이룩하였으니過去李朝五百餘年間에비록顯職으로서國家에貢獻한바는적었다하나忠節孝烈學行慈惠等여러方面으로著名한人士가輩出하여社會의龜鑑이되었음을알수있으며現代에이르러는八一五解放後政治文化社會經濟各界에顯著한進出을보게되어將來가囑望됨은實로欣幸事라하겠다

우리의先祖님諱玉同께서는結城君의長子이신領相公諱仲魯의七世孫이시니考諱益善靈光郡守祖考諱德明都事曾祖諱孝祥德川郡守이시다 公의아들이三兄弟이시니모두中宗朝에進士에及第하였으니그三兄弟분들의後孫이洪州洪東始興天安(以上進士諱熙后)德山富川公州(以上進士諱洪后)藍浦燕岐(以上進士諱湛后)等各地에分派居住하고있다이各派의族譜는各自分散되어或은燕岐譜或은結城譜또는安東張氏各派世譜等에附譜되어있고單獨으로各派統合된世譜

를가지지 못하고 따라서行列도各派區々하여行列字로서能히昭穆을 밝힐수
도 없게 되었음은 분히羞耻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제 비록晚時之歎이 없지
않으나結城張氏宗會에서企劃中인結城張氏系譜編纂을契機로하여各派代
表宗人이會同協議한結果結城張氏牧使公派譜를編纂刊行하기로合意를보
세 되었으며 그任務를一切結城張氏系譜編纂委員會副委員長亨基甫에게委
囑하였던 것이다

이派譜가始役約一年餘에竣成을보아 이제 처음으로吾派의綜合統一된派
譜의刊行을보게 됨은吾門空前의盛舉이오一大慶事라 하겠다同譜하시는食
宗諸賢께서는 다같이本譜의刊行을祝福하는同時에今後 더욱崇祖睦宗의道
義心を昂揚하고同宗間의團結을 굳게 하여相互親睦하고相扶相助의美德을
實踐함으로서吾門의無窮한發展과 아울러國家社會에 많은寄與있기를祈願
하여마지않는바이다

歲在檀紀四千三百二年己酉仲秋後孫英煥 謹識

結城張氏世譜序（領相公派燕岐譜）

譜者譜張氏之族也所以序昭穆而辨派流者也張氏源出於中華浙江省蘇州龍興府人張吉而被謫東來改名貞弼適值麗太祖立國之初佐麗祖有功封太師賜謚忠獻公我東之有張姓自此始矣然其來也杳茫上系多疑故僭妄懸註以俟後考斷自可徵者以結城君諱夏為中祖而仍貫焉竊惟吾派系於結城君長子領相公諱仲魯而結城君當麗運既訖之際危身奉上險不辭難及其屋社毀冠裂冕見機而作 聖祖召命誓死不應其精忠卓節可謂烈烈乎覆載之間矣領相公亦解官歸鄉杜門自靖奉親繼述志氣不挫其兼盡忠孝可謂卓卓乎宇宙之內矣而至予今久屈未伸子孫之遺憾莫此尤甚嗟夫千載之屈有幸過一朝之伸一家之私有不沒天下之公吾祖之久屈不伸豈非厚根深源以遺子孫耶自今以後枝連派通其在斯乎且夫忠孝者天之經地之義人之行而吾宗世世相傳之心法也得之於心則為德矣行之於身則為道矣施之於家則為事業矣上可以顯其祖先中可以立身揚名下可以裕後垂昆矣此鄙聖所謂天爵也祖先之陰德如此其深且厚天地之保佑如此其敦且篤焉則其於親親而尊尊尊尊而睦族睦族而仁民亦非高遠難行之事會宗勛哉

隆熙後己亥元旦不肖後孫在圭謹序

結城張氏牧使公派譜

太師公世系

張姓本自軒轅第五子揮始造強實張綱羅世掌其職後因氏焉風俗通云張王李趙黃帝賜姓也

張伯翼

子保皋

子羽

子籤

子源

子吉

字大號

官中郎將右僕射

本中原浙江省蘇

興府龍興人也一

派尚居其地諱萬

里之后奔龍高麗

志烈王時又來東

國貢德水

字正集又字弓福

唐朝右政丞來鎮

東國清海事蹟昭

載高麗史

字春夏

復入唐官大元帥

仁臣相公

字孟中

唐朝左丞相

唐朝大司馬大將

軍值更亂負其五

歲子諱吉浮東海

泊于朝鮮江原道

江陵。墓在廣州

改諱貞綱為東國

張氏始祖

始祖諱貞弼

子寶千

子錦善

子之賢

子孝翼

子萬鎰

子千鎰

初諱吉字寧父

後唐僖宗戊申生

高麗太祖十三年庚

寅正月即後唐明

帝長興元年新羅

字文叔

後梁貞明九年高

麗

太祖庚寅十一月十

三日生官吏部尚

初諱緒

初諱紀字明世

官今尹版圖判書

平章事神虎衛上

字君望號松溪辛

巳生戊午四月二

十日卒命九十八

平章事玉山府院

君一云青松君

見下

4

4

五洲世言

大抵諸事之難中三難事以不肖本是涉字薄識之者重大之諸事是担
當한다는 것은 甚히 重要事謀한 일이니 宗中有志諸賢의 懇曲한 要情을 저
바리기도 이치우므로 드디어 公은 決意를 가치고 存心抄에 由호는 諸事는 始
作호는 然다. 初은 計畫은 牧使公派子孫이 必지 않고 大概諸事가 있으므로 舊諸
中의 資料를 拔萃한 簡單히 型을 生覺하였던바, 以上諸事는 始作호
고 且니 遂行上은 難關의 隘路가 許多한데 理由이 推絶될 危機에 逢着하였었다.
그것은 初에는 否 早하든 일이나 舊諸中世系의 錯誤가 있음을 發見하였으니
即中祖結城君의 上代에 三代(八、九、十世)에 加添된 祖上이 있음을 알았고, 또 그後代에
도 錯誤가 있음을 發見하였다. 그런데 上代關係는 但 子의 結城君派뿐만 아니라
太師公의 孫諱錦用公을 先祖로 하는 以是派에 用호는 關係되므로 輕率히 以를 수 없
는 重大한 問題이므로, 이를 保留하리라고 하고, 本派諸는 中祖結城君으로부터 起一世
世系를 調整하였으니, 牧使公以後世系의 錯誤關係는, 正史正典否에 論議가 區々
하였으니, 消極論을 斷然排除한 積極的으로 系統을 以로 잡았되니는 正義에 立脚
함이 關係派門中代表者의 屢次會合하되 慎重討議한 結果, 이를 事實 그대로

是은하리圓滿한合意를보았다. 따라서收使公派의世系는 本譜의編纂을爲
 川로土正確히되였은후日에舊譜와의關係를弄漏할餘地는없을줄로인한다.
 是은제王隆路는各派門中の收單이甚히遲延되어編纂事務進行에障礙되不
 少하였으므로이對應策을不得已不肖各地宗人을屢訪하여收單할或은戶籍을
 閱覽資料를蒐集하였다. 그러므로生年月日을戶籍에依據陽曆으로記入(○即으로
 表示함)하였으며、墓誌、女婿의希貴을明記하듯하였은甚히遺憾으로생각한다.

前述한如의實이譜事進行上의困難으로말미암아이派譜에錯誤漏落等不
 備한點이있어諒을줄로생각되나 이는後日修譜時에充萬히檢討補正있기를
 企願하는바이며 今後牧使公使閣는이派譜를基本을하여 每三十年마다續譜
 를하여 다시散譜되는일이없기를바라미지않는다.

끝으로이派譜編纂에對하여特히貴重한文獻을提示함으로서始終如一의規格
 別한各指道等外難釋을하여주신 族史貞菴在堂先生남께衷心으로敬意外感謝를
 드리고 是은慰物心而面으로後極大援하여주신族人將志英煥南外再以譜基家基
 而君의協助에對하여深甚히謝意를表하는바이다.

西紀一九九〇年十月 晚秋